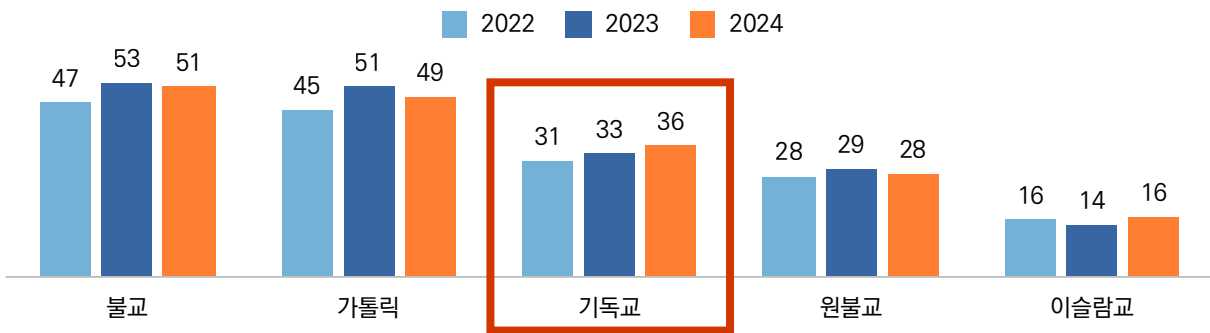




[한국인의 종교 호감도 추이]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, 2년 연속 상승!

- 우리 국민의 종교 호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'2024 종교인식조사'(한국리서치)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. 각 종교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을 100점 척도로 평가해 점수화한 결과, 불교만이 유일하게 51점으로 보통(50점)을 넘었으며 가톨릭은 49점, 기독교는 36점으로 나타났다.
- 전년과 비교했을 때 불교, 가톨릭 모두 호감도가 소폭 감소했으나 기독교는 5대 종교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호감도가 증가했다.

[그림]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(일반 국민, 100점 만점 평균 점수*, 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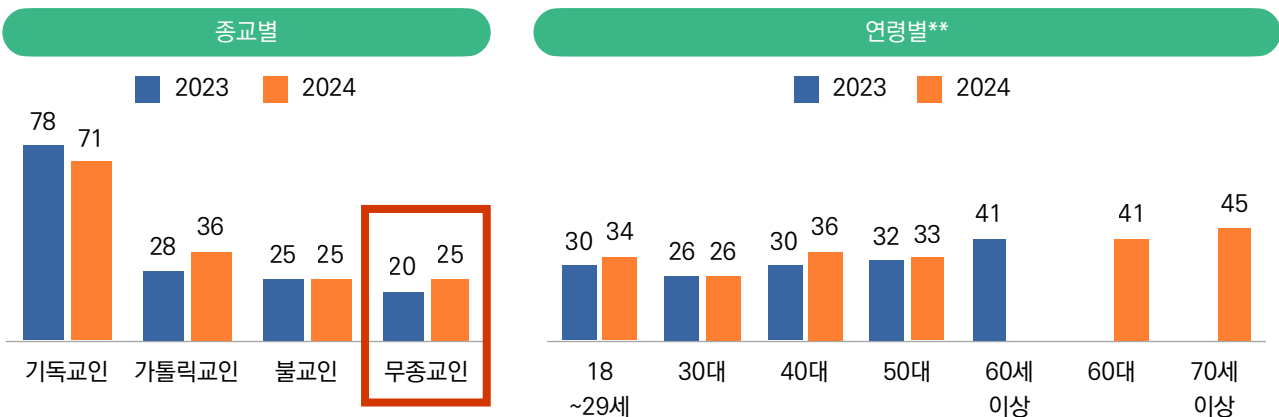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, '2024 종교인식조사: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의 영향력, 2024.12.18. (전국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4.11.22.~11.25.)

*각 종교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1~100도(점)으로 평가. 온도가 높을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.

무종교인의 기독교 호감도, 전년 대비 상승!

-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다. 가톨릭교인과 무종교인이 평가한 기독교 호감도는 각각 36점과 25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, 기독교인이 스스로 평가한 기독교 호감도는 71점으로 전년 대비 7점 감소했다.
- 연령별 기독교 호감도는 70대(45점)가 가장 높았고 30대(26점)가 가장 낮았다. 18~29세(34점)와 40대(36점)의 경우 전년 대비 호감도가 4~6점 상승한 점이 주목된다.

[그림] 응답자 특성별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(일반 국민, 100점 만점 평균 점수*, 점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, '2024 종교인식조사: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의 영향력, 2024.12.18. (전국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4.11.22.~11.25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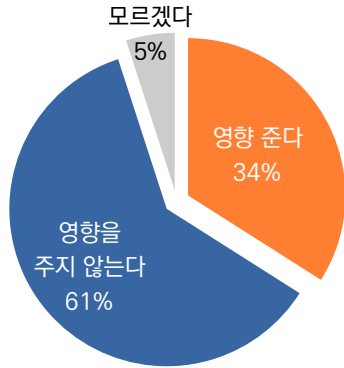
*각 종교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1~100도(점)으로 평가. 온도가 높을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.

**2023년은 '60세 이상', 2024년은 '60대', '70세 이상'으로 나누어 조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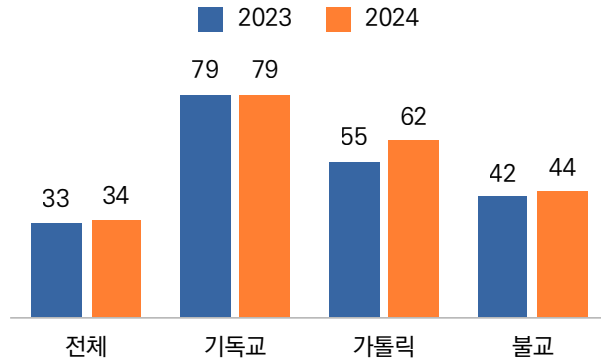
‘종교가 내 삶에 영향 미친다’, 기독교인이 타 종교 대비 크게 높아!

- 종교는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? 우리 국민 3명 중 1명(34%)만이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. ‘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’는 비율은 기독교인이 79%로 가톨릭(62%), 불교(44%)보다 크게 높았다.

[그림] 종교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* (일반 국민)



[그림] 종교별 ‘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’ 비율 (일반 국민, %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, ‘2024 종교인식조사: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의 영향력, 2024.12.18. (전국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4.11.22.~11.25.)

*4점 척도